

# 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대선공약 제안

## LOCAL

2025년 5월 8일 목요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18개 대선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 경전선 전철화·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18개 사업 노관규 시장 “차별화된 경쟁력 갖춰...공약 반영 희망”

순천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 대선 공약을 마련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자치체 설립 및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신경제거점, 미래 첨단 산업 벨트 구축’, ‘세계적인 생태도시 도약’의 3대 전략, 18개 핵심사업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전남은 소멸 위험 1

위 지역이다.

시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전남 동부권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영호남 광역 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출범을 지방 소멸 위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별자치체 설립 및 메가시티를 실현할 광역인프라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전남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전남 의과대학 및 대학 병원 신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미래첨단산업벨트 구축 계획도 담았다. 시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국가 우주위성 데이터센터 구축, 전남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생태 자원을 활용해 남해안 생태관광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시범 도시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순천 동천하구습지 복원, 동천 국가하천 정비사업, 웰니스 치유관광산업 메카 구축, 국제 승마타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5명 중 1명이 찾는 1000만 관광객이 국가정원과 연계해 호남권과 남해안남중권 25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콘텐츠·스포츠 클러스터 조성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문화예술회관 건립, 글로벌 콘텐츠 아카데미 및 체험 학교 조성,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이 포함됐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은 세계적 생태자원, 광역 교통망, 탄탄한 산업기반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며 “이번에 제안한 내용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장성, 전구간 가로수 증점 관리 3만2000그루 가지치기 등 작업

장성군이 경관 향상과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국도 1호선 등 전 구간의 가로수를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군목인 단풍나무를 비롯해 양벚나무, 이팝나무 등 36개 노선 가로수 3만 2000여주로, 생육주기에 따라 가지치기, 겹순 제거, 보식작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병해충 방제작업은 10월까지 총 3회를 실시해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해운이나 배수 불량 등으로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간별 보식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나무를 심는다.

장성읍~축령산 편백숲 방면 국도 13호선 편백나무 가로수길은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주변 정리를 실시해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한중 군수는 “가로수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민과 방문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b6699@gwangnam.co.kr

### 함평, 지역사회건강조사

16일부터 성인 900명 대상

함평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실시된다.

조사는 군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함평군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수행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전문 조사원을 파견해 진행한다.

조사 방식은 1대 1 면접조사로, 전담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읍면, 읍주, 운동, 영양,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 건강행태 전반에 대한 180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원은 보건소장 직인이 날인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지정 유니폼(조끼)을 착용한 공식 복장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 철쭉 활짝 핀 보성 일림산에 5만명 발걸음

포도존·목공놀이 체험·특산물 판매장 등 ‘오감 만족’

보성군은 최근 옹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에 역대 최다인 5만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철쭉 개화시기와 맞물려 전국의 상춘객들이 대거 몰리며 보성의 봄철 대표 축제로 주목받았다.

해발 667m의 일림산은 호남정맥의 끝자락이자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명산으로, 산 전체 150ha를 뒤덮은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하다.

철쭉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산책길과 푸른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절경은 올해도 수많은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지난 4일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산신제례 행사는 일림산 정상에서 푸르미예술단의 사물놀이와 함께 열렸으며,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경

열 보성군의회 의장, 한중길 옹치면민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행사장 입구에는 철쭉 포도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목공 놀이 체험, 편백나무 자르기, 차나무 화분 만들기, 보성 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돼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켰으며, 연일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손석의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기후가 따뜻하고 생육 조건이 좋아 철쭉이 유독 선명하고 풍성하게 피어올랐다”며 “앞으로도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국내 대표 봄꽃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는 매년 5월 초 철쭉 만개 시기에 맞춰 열리며, 가족 나들이와 봄꽃 관광을 즐기기에 최적의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imth66@



최근 이순신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개최된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가 2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여수거북선축제, 22만명 방문...해상전투 ‘호응’

내년 60주년...대한민국 대표 축제 도약 예고

여수시는 최근 이순신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개최된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2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여수시가 직접 주관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막공연은 무대 슬라이딩 방식으로 펼쳐진 대형 거북선 등장과 해상전투, 공중 불꽃쇼 등을 통해 웅장하고 생동감 있는 장면을 연출했으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대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영 길놀이는 서교동로터리부터 중앙동로터리 구간을 따라

독제, 수군출정식, 해상전투, 승전보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됐고, 중앙동로터리에서는 음향, 조명, 특수효과를 활용한 해상수군전투 장면이 재현돼 큰 호응을 얻었다.

여수시는 지난해 많은 논란이 된 불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제 개최 전 유관 부서와 협력해 사전 차단 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지 선제적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축제는 여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해상전투 멀티미디어쇼, 여수항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삼도수군 태권무 경연대회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조선

시대를 테마로 한 30여개의 가족 체험 프로그램과 ‘조선수군을 이겨라’, ‘조선수군단’ 등 관객 참여형 콘텐츠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 내 음식 부스를 운영하지 않고, 진남상가 차 없는 거리에 프리마켓을 조성해 인근 상권 이용 유도로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정기명 시장은 “우천 속에서도 22만여명의 방문객이 함께한 이번 축제는 유관기관의 협조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내년 60주년을 맞는 여수거북선축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문화·관광·경제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콘텐츠로 채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최근 보성 옹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개최된 관람객들이 일림산 산 능선을 따라 등산하고 있다.

엑스페론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 밸런스 라인